출판저널 칼럼

# 방학과 교양독서


安在植

문교부 교육연구관 · 수필가


방학이란 학교의 수업을 일정기간 쉬는 단순한 일정만은 아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의해 짜여진 학교생활을 벗어나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가정은 아이들의 등교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사회는 방학을 맞는 자녀들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입시지옥이란 낱말이 입에 오르내리기 이전의 방학은 퍽 낭만적이었고 교양독서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 방학숙제에는 몇 권의 양서에 대한 독후감이 반드시 포함되었다. 그래도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은 독서를 통하여 참삶의 지혜와 그 무게를 얻는다는 생각이 학생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구조가 물질문명사회로 바뀌어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방학 중 교양독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잣대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컴퓨터화하는 오늘의 사회구조에 알맞은 기능적인 잣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확성이 보장되고 그 정확성이 사회윤리로 정착되는 듯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사회 전체가 정신적인 잣대를 길러줄 독서에는 아예 불감증에 걸린 느낌이다. 더구나 입시지옥이란 괴물이 학생들의 손에서 교양서적을 빼앗아버린 후 그 빈 손에 4지선다형 문제집과 단답형 참고서를 쥐어주었다. 뿐만 아니다. 어쩌다 고전 등 읽을거리를 손에 들기만 하면 큰일이라도 난 듯 부모들은 '애 공부해라'하고 다그치기 일쑤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방학숙제로 독후감을 제출토록 해도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고 문예사전 등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베껴갈 수밖에 없다.

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다양하게 변모하는 문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학습량이 날로 불어나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도 교양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할 형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 때문에 정신적인 잣대인 윤리관이 갈등을 빚게 되고, 지금 우리들 앞에 노도처럼 번지고 있는 무책임한 욕구분출도 따지고 보면 독서량의 절대부족에서 기인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혹자는 우리의 출판문화가 세계 10위권에 부상하고, 연간 3천3백억원의 매출실적을 가진 독서량을 기준으로 자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독서량은 87년도 기준 1인당 3.75권에 불과하다. 미국의 9.1권, 일본의 10.8권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의 독서량 중 절대다수가 시험준비 참고서요, 감각적인 내용물이 베스트셀러 덤에 올라 있지 않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학교는 교양독서를 활성화시킬 교육과정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가정과 사회는 학습량 부담이 적은 방학기간에 양서를 읽을 수 있는 자리 마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출판계 역시 이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편집체제를 개발하여 독자를 양서로 유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창달의 매체인 독서가 삶의 바탕을 옹글게 다질 것이란 신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표지사진/구본창


#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89년 7월 20일 제44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초점 2 저작권법,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3 출판사는 늘고 발행종수는 줄고
특별기획 4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2
—민족자본으로 이룩된 漢城圖書
토픽 7 성년 맞아 새 출범한 '출판학회'
표지인물 8 「韓國陶磁史」 최초로 펴낸 姜敬淑교수
서평 10 한국공법학회 「美國憲法과 韓國憲法」—李康爀
韓駿相 「靑少年問題와 學校敎育」—全成連
11 전기호 「한국노동경제론」—金錦守
유네스코 「정보사회와 교육」—강순원
12 콘스탄스 리드 「힐버트」—朴世熙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潘星完
13 E.곰브리치 「예술과 환영」—宋美淑
박용안 역 「海洋鑛物資源」—朴秀喆
14 김치수·김현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金正蘭
랜달 P.해리슨 「만화와 커뮤니케이션」—李範洙
15 이호철 「네겹 두른 족속들」—李東夏
崔一男 「숨통」—권영민
시평 16 왜 지금 여기서 '미셸 푸코'인가/尹平重
저자 인터뷰 18 「韓國敎育思想史」 전 6 권 펴낸 孫仁銖교수
출판화제 20 한꺼번에 36종 선보인 '빛깔있는 책들'
21 새 영역으로 자리잡는 '등산책' 출판
현지보고 22 비디오에 멍드는 '나성골'의 서점가/장소현
컬러 24 梨大 李效再교수의 書架
세계의 추천도서 26 서머셋 몸의 즐거운 文學目錄/李重漢
작품구상 17 중편소설 「한 노파의 쪽머리」/河瑾燦
저작구상 27 서양미술의 특성 살피는 「西洋美術史」/林英芳
지금 독서중 28 이색시집 「B병동 시화전」—'우리정 나눔터' 朴莛煥씨
장 그르니에의 수필집 「섬」—방송작가 具滋亨씨
29 윤정모의 「고삐」—학원강사 趙珍淑씨
方勳之의 自選集 「방여지는 말한다」—직장인 趙晩熙씨
세계의 출판 30 美출판가, 인기작가에 과잉투자·外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理工도서/독자서평
44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데스크 칼럼/독서퀴즈


社告

## 본지 7월5일자 정기휴간

「출판저널」은 매년 8월5일자를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정기 휴간하였사오나, 올해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휴간 일자를 앞당겨 7월5일자를 휴간합니다. 그에 따라 제44호를 7월20일자로, 제45호를 8월5일자로 발행하오니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